

불자 축구선수들

독일 월드컵 4강 '쏜다'

최종 엔트리 확정
박지성
설기현
이을용
김남일
최진철
조재진

불자 축구 선수인 설기현 박지성 이을용 김남일 최진철 선수 등이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녹색 그라운드를 누빈다. 2002 월드컵 대표팀 주장에서 코치로 나선 홍명보 코치도 불자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2006 독일월드컵 최종엔트리 23명의 명단을 5월 11일 확정 발표했다.

대표팀의 기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박지성 선수는 올 초 현대불교신문에 사인을 보내 불심을 고백한 바 있을 정도로 신심이 돈독하다. 어머니 장명자씨는 화성 용주사에서 아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프로필에 불자임을 밝히고 있는 최진철 선수는 이번 월드컵이 은퇴 전 마지막이기에 더욱 부흥을 불사르고 있다. 일본 리그에서 골을 몰아넣으며 맹활약 중인 조재진 선수는 어머니의 불심이 그 뒷심이다.

설기현 선수의 어머니 김영자씨는 2002년 월드컵 때 대구 갖바위에서 기도했듯 이번에도 기도에 몰두하고 있다. 이을용 선수의 아내 이숙씨, 온 가족이 불자라는 김남일 선수의 가족도 소문난 신심을 자랑한다.

2002년 4강 신화를 일궈낸 설기현 박지성 이을용 김남일 최진철 선수가 2006년 독일에서도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열기를 기대한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news.com

어려운 음악회!

윤이상 실내악 공연

현대음악 수용의 불모지 한국에서 현대음악의 큰 흐름을 짚어주기 위한 음악회가 5월 19-21일 마련된다. 경기문화재단과 윤이상평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윤이상 선생의 작품 '4중주(Quartet)'가 한국 초연된다.

파주 헤이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열리는 '어려운 음악회'는 첫째날 현대의 성악곡을 시작으로 둘째날 '대왕의 주제'를 비롯한 윤이상 실내악, 셋째날 현대의 기악곡으로 막을 내린다.

정규기 한양대 교수 등이 감상 길잡이로 나서고 빈트리오, 여음목관5중주단, 배지원 노현석씨 등 연주자들이 공연에 합류한다. (02)391-9631 강지연 기자

소현 성인호 '선 달마화전'

소현 성인호 화백의 '선(禪) 달마화전'이 5월 12-18일 북포시문화예술회관 제6전시실에서 열린다.

50점의 한국화와 20점의 도자기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달마도와 장음도, 연꽃, 사찰풍경 등이 화사함과 관음미를 동시에 풍겨낸다. (061)270-8487 강지연 기자

정정 576호에 보도된 부처님오신날 특집방송 안내에서 소개된 KBS스페셜 '인연'은 방송이 연기되어 방영되지 않았습다.



우리는 동감내기 '도반'

해인사 해안스님·배우 이휘향



4월 30일 종로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진 연등축제에서 서각페스티벌을 개최한 해안스님을 찾아온 이휘향씨. 사진=김두식 기자

"미국 태고사 무량 스님을 듣는 단체로 무량회가 있어요. 그 무량회에는 탤런트 이휘향씨, 조세현 사진작가 등 다양한 분들이 있죠. 제가 5-6년 정도 태고사에서 머물면서 불사를 도왔는데 그때 이휘향씨를 알게 됐습니다." 전각가로 활동중인 해안스님(해인사)은 탤런트 이휘향씨를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라고 표현한다. '스님과 신도'가 아니라 '도반'이 된 데는 동

50일을 해인사에서 기도하면서 보냈다. 산문 밖으로 나서지도 않은 채 기도 정진으로 먼저 간 남편을 기리는 날이었다. 이렇게 깊은 신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휘향씨에게 KBS에서 드라마 '등신불'의 어머니 역할 제안이 들어왔다.

제안을 수락한 이휘향씨는 해안스님에게 조계종으로부터 제작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스

무량회 활동으로 태고사 불사 도와 줄때 인연 드라마 등신불 제작 어려움 겪을 때 지원 받기도

김이라는 나이뿐만 아니라 스님의 책도 한류였다.

지난해 스님이 펴낸 책 <그대, 떠나보지라>를 읽고 이휘향씨는 "제가 책을 하루에 다 몰아서 읽지 않는데 이 책은 하루에 다 읽어버렸다"며 "책 내용에 굉장히 감동받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말한다. 자신이 받은 감명을 나누고자 동료 탤런트 전인화씨 등에게도 책을 선물했다.

합천 해인사 신도인 이휘향씨의 신심은 해인사 내에서도 유명하다. 요란한 것은 아니다. 그저 조용히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떠나간다. 이씨의 신행태도는 스님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가을, 폐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이휘향씨. 49재를 치를 때까지

님의 노력으로 조계종은 촬영장소 제공 및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예절 교육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부처님오신날 방영을 목표로 제작되던 드라마는 제작이 늦어져 이휘향씨는 빠지게 됐다. 이휘향씨는 자신의 출연여부보다는 드라마의 완성도에 관심을 기울였고 해안스님은 이씨의 약속 때문에 드라마 제작 지원에 전력을 다해 돕고 있다. 스님 역할을 해야 할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 교육 수준의 배우교육도 해안스님이 도맡아 진행한다.

해안스님은 "스님과 신도라기보다는 '탁마'하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사이"라며 "이렇게 훌륭한 도반과의 좋은 인연을 잘 이어갈 것"이라고 고백한다. 강지연 기자

몸으로 펼친 또다른 문명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 2006' 5월 24일~6월 6일

7개국 21편의 작품 선봬

예술로서의 '몸'을 정의 내린다면? 예술가는 이제 미래에 관한 참신한 발상의 시작을 몸에서 찾는다. 국내외 최고 안무가들이 '몸'을 화두 삼아, 인간의 육체로 그려내는 예술을 무대에 올렸다.

한국현대무용협회가 주최하는 제25회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Modafe) 2006이

'몸을 통해 상상하는 미래의 문명'을 주제로 5월 24일~6월 6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과 서강대 메리홀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스위스 벨기에 영국 등 세계 무용계의 최신 흐름을 담은 7개 국가의 예술 단체들이 '몸'을 주제로 한 21편의 작품으로

다양한 색깔을 드러낼 예정이다.

개막 공연은 2005 서울무용제 대상 수상자인 황미숙(파사현대무용단)씨와 2000년 이후 디지털 댄스를 국내에 도입해 화제가 된 조양숙씨가 공동 작업한 '변하지 않는...'이 장식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한 개막무대는 문자의 생성, 종이의 발명, 문명과 예술의 발전을 짚어가며 시공간을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참가단은 미국의 '웬 웨이 댄스 아트', 세계 정상 무용단으로서의 명성을 쌓아가는 이들이 아시아 초연으로 선보일 '봄의 제전'과 '폴딩'은 2003년 뉴욕 링컨센터 페스티벌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이래 세계 무용계의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특히 '폴딩'은 정중동(靜中動)으로 표현한 무대가 공연 내내 동양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동양의 선(禪)사상을 뛰어난 테크닉으로 현대 무용과 조화시킨 작품으로 유명하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극대화시킨 '폴딩'은 동양의 정서를 잘 담아낸 색채와 움직임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02)765-5352 강지연 기자



개국 10주년

2006 꿈이 있는 문예마당

참가비 무료

참가준비물 ① 공통: 참가신청서(www.dgbbs.co.kr에서 다운로드, 단체는 1부로 가능), 점심도시락, 돗자리
 ② 그리기 참가자: 그림도구 ③ 글짓기 참가자: 필기도구, 책받침
 ④ 사진촬영 참가자: 디지털카메라 * 원고지와 도화지는 지급합니다.

부문·시상내역

부	문	시	상
유치부	그리기		문화관광부장관상 대구광역시장상, 대구광역시교육감상, 대구지방경찰청장상
초등저학년	그리기, 산문		대구상공회의소회장상, 경북체신청장상, 각 대학교 총장상 등 다수
초등고학년	그리기, 산문, 운문, 디카촬영		대 상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방송 이사장
중등부	그리기, 산문, 운문, 디카촬영		

발표 5월 29일(월) 대구BBS 홈페이지 www.dgbbs.co.kr에 게시

주최 BBS 대구불교방송

주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 대불어 대구지부

행사문의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 053)427-5114

후원 문화관광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상공회의소, 경북체신청, 한전대구지사, 대구은행, 대구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 대구교육대학교, 동국대학교, 워커힌대학교, 보현사신협, 금성도트사